

민주 새 원내대표 내일 선출

박기춘·전병헌·김한길·신계륜 거론 합의 추대론 속 후보군 막판 '저울질'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른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합의 추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위원장 김우남)는 26일 회의를 열어 27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박 전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5월 초까지다. 새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을 겸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막판 저울질이 한창이다. 특히 분열 양상을 피하려는 취지에서 중진·원로그룹을 중심으로 합의 추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3선의 박기춘·전병헌 의원은 애초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에서 구도가 이어지면서 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출산 등 이른바 거

물급 인사들이 출마, 어느 정도 추대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추대론에 동참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아직 뜻을 접은 것은 아니며 하루 이를 더 생각해 볼 것"이라며 "대선 패배 후 치열하게 경쟁할 동력이 형성되기 어려운데다 당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도 한 방법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1,000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주류 중진·원로그룹 쪽에선 비주류 좌장격인 4선의 김한길 전 최고위원 추대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는 "더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추대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선에 직접 책임이 없거나 전면에 서지 않았던 분, 계파색이 옅은 분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선의 신계륜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와 당권 도전을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486의 망명격인 신 의원은 범진노로 분류되며 고(故) 김근태 전 상

임고문 계열인 민평련 소속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주변에서 진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어느 쪽으로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486인사와 초·재선 그룹 쪽에서 대어 선명성 등을 들어 3선의 박영선 의원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486 재선 의원은 "본인이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직도 대선패배 책임론 공방 민주통합당 한심한 '허송세월'

정치혁신 공감 속 주·비주류 권력 쟁탈전 양상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일주일이지만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론 공방에서 한 치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대선에서 문제인 후보에 폭발적 지지를 보내고 대선 패배로 정치적 고립 양상에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역 민심을 더욱 패하게 만들고 있다.

일단,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권력 쟁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주류 측은 대체로 중도층 공약 실패를 대선 패배 요인으로 꼽고, 민주당이 새끼를 거둔다기 위해 대선 '친노(친노무현) 이미지 탈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선의 민병두 의원은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중도층은 이념적 지형이 아니라 정당의 태도, 문화, 언어 등을 본다"며 "민주당

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선 중진인 김영환 의원은 "창당에 준하는 정치쇄신이 이뤄져야 하고 대선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이 일은 대선에 직접적 책임이 없거나 전면에 서 있지 않았던 분, 계파의 색깔이 옅은 분이 해야 한다"고 '주류 배제론'을 폈다.

특히, 비주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은 채 향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중심의 신당 바람이 불면 존립마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주류 진영에서는 정치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친노 책임론에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친노 계열인 전해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당이 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 실망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

부를 한층 책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친노 책임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보다는 당내 주도권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민심은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며 분노하는 모습이 다.

선대위 고위 인사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한 발 후퇴하는 한편, 당내에서는 정치적 기대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는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옳으며 정치적 기대권을 내려놓는 쇄신을 통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박 당선인 회동 언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회동은 언제 이뤄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례로 이뤄져 온 이 회동은 새해 1월초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례적이라면 배경에서 일정이 담보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 양측은 26일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박 당선인 측에서는 18대 대선 후 첫 휴일인 22~23일 회동을 갖는 방안을 내부 검토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미뤄졌다. 그러나 정권 인수인계를 하루라도 빨리 논의하려면 연내에는 회동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 확정 9일 뒤인 12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의 회동이 이뤄졌다. 이는 박 당선인 측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등 진용이 덜 갖춰진 것에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 측에서는 조각과 새 청와대 비서진 구성을 위한 각종 인사자료, 인사검증을 위한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회동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 회동은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해로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 겸 신임 원내대표를 연내에 선출하기로 한 만큼 회동은 새 전열이 갖춰진 후인 1월 초 신년인사를 겸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의 작명(네이밍)을 놓고 고심중이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26일 "새 정부의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할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출범할 정권인수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을 대통령의 이름이나 특정 브랜드를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은 그 정부의 국정이념과 성격, 나아가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교체 때마다 당선인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1992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군정식사의 의미를 담아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쓰면서 브랜딩 명칭이 처음 도입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새 정부 명칭 고심 박 당선인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의 작명(네이밍)을 놓고 고심중이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26일 "새 정부의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할지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출범할 정권인수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을 대통령의 이름이나 특정 브랜드를 붙이는 이른바 네이밍은 그 정부의 국정이념과 성격, 나아가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교체 때마다 당선인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1992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군정식사의 의미를 담아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쓰면서 브랜딩 명칭이 처음 도입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민주 초선 20명, 대선패배 사죄 '1000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 사죄의 표시로 1000배에 나사고 자살 노동자의 빈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대국민 참회의 뜻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 20명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선패배 사죄 1000배를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지는 죄를 짓기 위해 당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000배엔 김기춘·김성주·김용익·남인순·박혜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사죄를 구할 계획이다. 김승남·임내현 등은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 3선 연임 의원들의 모임인 '삼민회' 소속 문희상·노영민·박영선·변재일·이상민 의원 등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마련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교(故) 이호일 노조위원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진보성향 486 추축인 진보행동을 중심으로 박영선·김천미·우

상호·김기춘·박홍근·배재정·윤수미·유은혜·진선미 의원 등 9명은 지난 25일 한진중공업 교(故) 최강서 씨와 현대중공업 교(故) 이은남 씨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송년차에서 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여러분의 절망은 민주당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다. 용서하지 말고 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만 보달라"고 호소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 NPL물건 특수물건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1:1 개인 스테디
- ▶1인 1물건 추천
- ▶회비 1,100만원

투자자몹

- ▶단독/공동투자 가능
- ▶투자금 1억원 이상
- ▶기간 : 1년 정도
- ▶법적 보장/지분 등기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종원이사 010-8227-77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건553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원룸 [계림동] 대3333㎡,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공장 [나주공진] 대29710㎡,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공장 [장성동화] 대1983㎡,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웅진동] 대2315㎡, 건1542㎡, 감정가 22억, 최저가 14억 신안압해 [횡집, 판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상가 [신항동] 대 67㎡, 건 134㎡, 감정가 2억45천, 최저가 1억1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임야 [전주안성]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3289평, 건물 1601평, 감정가 52억4천, 매매가 36억7천 목포 상동 [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 18억6천, 최저가 13억1천 무안 망운 [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 11억, 최저가 6억2천 화순 도곡 [무인텔] 대190㎡, 건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영광법성 [근린상가] 대1106평, 건1297평, 감정가 134억8천, 최저가 24억4천 목포 상동 [근린주택] 대1697, 건204평, 감정가 88억, 최저가 6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정동 [창기외에숙점]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운양동 [근린시설]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4천, 매매가 27억7천 구례 용방 [공점]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 3억, 최저가 7억4천 서구 서평동 [숙박시설]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 15억, 최저가 10억5천 서구 서평동 [숙박시설] 대1697, 건204평, 감정가 88억, 최저가 62억 서구 서평동 [숙박시설] 대1697, 건204평, 감정가 88억, 최저가 62억 북구 용진동 [공점]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 22억7천, 최저가 4억9천

입대 및 매매 감수회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 12월31일 오픈 예정인 (주)송향기닷컴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한모(여)2명, 실컷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개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묵우탕
- 고시원
- 디카구주택, 원룸, 투룸, 스키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매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폭,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던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사무 무리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